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대비체육센터 유치률”

하남시의회, 축구 건의안 의결
시 내년 예산 1조450억 실사

경기 하남시의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반대비체육센터'의 조속한 유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 반대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정취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경기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반대비체육센터 유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는 '반대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공공체육시설이다. 2022년 6월 기준, 96곳의 건립 지원이 확정된 반대비체육센터는 2022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후 현재 14곳이 개관·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정부 공모 대응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의안에는 ▲2026년 공모 즉시 대비 ▲적정 부지 조속 확보 ▲장애인 및 보호자·장애인체육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정부·경기도와 협력 강화 및 국비 확보 협력 ▲장애인 스포츠 참여권 보장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건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하남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시의회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 후 본회의에서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앞서 시는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2.16% 감소한 1조45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4일부터 소관 상임위원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하남=진용환 기자 jyw@sinimilbo.co.kr



하남시원들이 반대비체육센터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해남군의의회, 郡 올해 4차 추경안 1조1515억6440만원 원안가결

전남 해남군의의회가 최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반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안건으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의회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인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해남군 야생동물 중독·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과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의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했다.

그리고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등

원안가결했으며, 총 1조1515억6440만5000원 규모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도 원안가결했다. 이는 기정액 1조1449억4835만4000원에서 66억1605만1000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해남군수의 시장정례회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별 오는 1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거쳐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농업인 소득의

“구로구, 쪼개기 근로계약 문제... 노동자 업무 안정성·갱신 기대권 보장”

김미주 구의원 시책 질의

김미주 서울 구로구의회의 의원인 최근 제340회 구로구의회의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로구청의 ‘쪼개기 근로계약’ 실태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장진홍 구청장을 상대로 진행한 시책질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구조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전담 TF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유명 배

아커리 업체의 쪼개기 근로계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언급하며 “구로구청과 산하기관·출연기관에서 총 47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필요 인력 운용’과 ‘시장배치 배치 등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해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부서별 협업 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관련 부서 협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을 위해 통학로 안전 TF를 구성해 이를 전담해 달라”고 장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진홍 구청장은 쪼개기 근로계약과 관련된 예산 등의 문제를 어려움이 있으나, 공무직 퇴직시 공무원으로 재고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로 안전 TF에 대해서도 부서별 업무 분장 문제에 공감하며 필요시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소진 기자 zin@sinimilbo.co.kr

“인천시 7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

시의회 건설교통위, 지원 조례안 통과

인천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대비 의원(부령구)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조례는 원래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인천시 재정 여건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5세 이상으로 상향시켜 조정됐다.

또한, 인천시는 매년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복지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아이 실버패스’ 정책을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아이 실버패스’는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를 ‘시니어 프리패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75세 이상 노인 카드 한 장으로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예산은 월 25억6000만원, 연간 약 3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카드 제작비 10억원, 운수업체 지원비 160억원 등 총 170억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시행 대상은 약 22만명으로 추산되며, 사업 재원은 버스 준공영제 체계 내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한남=문진석 기자 mcs@sinimilbo.co.kr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준비 전무 사실상 직무유기... 정책 추진 의지 부재 방증”

이동식 구의원, 행감서 지적

최근 서울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린학습자 지원정책의 지난 3년간 공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동식 의원은 2023년 11월 행정된 ‘서울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제3조)하고 의무화(제5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교육지원과 담당 공무원이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비속한 시기에 출발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구청 정책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은평구만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일부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유 기자 nice@sinimilbo.co.kr

“고교 사회 진출 역량개발 지원 프로 확대를”

김진경 경기도의원 비판

김진경 경기도의원 의원인 최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취득에 있어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중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한=최수진 기자 cjs7749@sinimilbo.co.kr

올바른 손씻기 감염병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캠페인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탄천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입찰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로 합가 '성남시'로부터 수탁받은 권리중인 탄천종합운동장 내 공유재산(상점)에 대한 사용허가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입찰 명: 탄천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
- 2) 입찰대상: 체육회관 지하2층 내 상점1호, 상점22,22-1호

- 대상 위치: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215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지하2층 - 서부 내역

재산명	면적(㎡)	매각가액(원)
상점1호	상점	149.61 96.00 53.61 18,673,040
상점22, 22-1	휴게시설상점	249.34 160.00 89.34 44,457,840

※ 판매대상: 공유 재산시설 내 입점 직할 중대에 한하여 현재 탄천종합운동장 내 입점 업체와 중대 금지

- 현재 입점 업체: 여성복류점, 스카이프팅점, 스포츠용품 판매점, 수형, 라켓, 철근용품, 피부관리점, 미용실, 미용, 유제품점, 커피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스낵점, 커피전문점, 분점, 음료 자동판매기

3) 입대기간: 5년 이내(5년 이내 범위에서 1회 갱신 가능)

- 4) 입대료 산정방법
- 가) 1차 연도: 최고 입찰가(낙찰가)
- 나) 2차 연도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에 따른 산출금액

5) 입찰일정

가) 입찰기간: 2025. 12. 4(목) 14:00 ~ 2025. 12. 11(목) 16:00 / 8일간

나) 개찰일시: 2025. 12. 12(금) 10:00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인생략]